언어는 끝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모국어의 범위 안에서 무한한 문장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릴때부터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시작하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1950년대 초, 놈 촘스키는 이 범용성의 키는 문법에 있는 듯한 관측에 기초한 이론을 제안했다.

낯선 글의 그 익숙한 문법적인 구조는 우리를 그의미로 돌린다.

그는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문법적인 규칙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 규칙은 타고난 것이며 인간의 뇌는 이들 규칙에 따른 언어를 처리하도록 짜여져 있다.

그는 이 기능을 보편적 문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언어학 분야와 인지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모두 만드는 조사를 시작했다.

촘스키와 다른 연구자들은 보편적 문법의 두 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실 모든 언어의 보편적인 문법 규칙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규칙이 뇌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지다.

문법의 보편적인 규칙을 확립하고자 할 때, 촘스키는 언어 구조가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계층 구조 트리

단어의 순서를 나타내는 생성 구문으로 알려진 분석 툴을 개발했다.

이 트리를 바탕으로 부사는 동사구에서 반드시 발생해야만 한다라는 문법 규칙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부사는 동사구 외에 출현한다는 것을 곧 밝혀집니다.

이 간략화된 예시는 주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 언어의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어느 언어에 공통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기까지

각 언어에서 얻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다.

촘스키가 보편적 문법을 제안했을 때 많은 언어는 생성 구문을 사용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함

녹음 샘플의 양이 부족했다. 대량의 데이터가 있어도, 언어의 구조를 도면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다.

50년 분석 후에도 우리는 아직 완전히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많은 언어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됨에 따라 세계의 언어는 크게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보편적 문법 규칙이 있다라는 이론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다.

1980년대에 촘스키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론을 수정했다.

그의 새로운 원리와 파라미터의 가설에 따르면 모든 언어는 특정 문법적인 원리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 범위는 다양한다. 또한 이들 원리의 적용방법도 다른다.

예를 들어서 원리는 ‘모든 문장에 주어를 가져야 한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주제를 명시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는지는 언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원리와 파라미터의 가설은 아직 어느 문법적인 원리가 보편적인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 촘스키는 하나의 공유화된 공통원리에 불과하다고 제안했다.

recursion(재귀)이라 불리는 그 공통원리는 구조체가 서로의 내부에서 딱 들어맞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을 샘플하면, 문장 속의 문장 속에 문장을 채워 넣는 거죠.

이 글은 명사구 속의 명사구 속에 명사구를 채워 넣는 거죠.

재귀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문법 규칙이 좋은 후보였다.

그러나 2005년, 언어학자들은 피라하라고 하는 재귀적 구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아마존어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표했다.

그럼 우리의 언어 능력은 선천적이라는 촘스키의 이론 중 하나는 어떨까요?

그가 처음 보편적인 문법을 제안했을 때 언어 습득의 유전자적 결정 측면은 깊고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행동 주의로 불리는 지배적인 이론의 틀에 이의를 제기했다.

행동론자는 모든 동물과 인간의 행동이 언어를 포함하여 새하얀 석판으로 시작되는 마음에서 외부로부터 획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행동주의가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학습에는 유전적으로 코드화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바탕에 깔려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언어에 원인을 가진 같은 생물학이,또 인식의 다른 측면에도 원인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언어학자들은 뇌에는 특정, 고립되고 선천적인 기능이 있다는 촘스키의 생각을 반대했습니다.

보편문법의 이론은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많은 언어의 문서화와 연구를 촉진시켰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 낡은 생각을 재평가하고 결국 뒤집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